

---

# 인사말



이준성 이사장

친애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다 전향적인 실천 의지를 갖고 지난 2001년 출범한 제 19대 미주 총연 집행부 에서는 회원 여러분이 인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오영 회장님을 중심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큰 대과 없이 총연합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총연에서는 9-11 사태라는 돌발적 사태에 신속히 대응함은 물론 총연 산하 전 미주 186개의 한인회가 하나가 되어 4백 5십 만 불이라는 거금을 마련, 희생자 유족 지원을 위해 적십자사에 전 달은 물론 백악관과 관계 기관에 테러에 강력한 응징을 해야 한다는 총연의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해 태풍 로사에 극심한 피해를 당한 농가를 위해 미주 동포들이 피와 땀이 섞인 귀중한 성금 1백 50만 불을 마련하여 한국 정부에 전하는 등 한민족 공동의 아픔을 함께하는 단합과 참여를 실천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주류 사회에 한민족의 실체와 잠재적 능력의 표출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산적한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세부적인 사항 까지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음으로써 이민 1백 주년 기념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또한 2003년은 2백 20만 재미 한민족에게 있어 뜻 깊은 해로 많은 것을 되돌아 보는 계기를 마련해 주어 우리 모두에게 주류 사회 속에 후손들이 발전 할 수 있는 토양을 새롭게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도약의 이정표를 되새겨 준 해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 25년 동안 모든 문제에서 긍정적 답을 찾아내어 오늘을 이루고 있는 총합회의 실상이며, 이민 역사의 이정표인 1백 주년 행사를 한민족의 구심점으로 정립하여 지역 사회 봉사 인으로서 성숙함과 능력을 재확인한 결과로 기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미주 총연은 용기와 왕성한 활동을 시작하는 청년의 나이, 25년이 되는 해로 새로운 각오로 장애물을 헤쳐 나가는 투지를 재 축적하고 비상(飛上)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이 주어진 해이기도 합니다. 중동 지역과 한반도에 팽배하고 있는 긴장은, 해외 6백만 동포와 미주 한민족에 있어 한, 미 동맹 50 주년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주류 사회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되새겨 봐야 한다는 자기 성찰을 요구하는 사회적 부하(負荷)입니다.

친애하는 회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임원 이사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총연 창립 25 주년을 맞아, 총연사 발간을 위해 불철 주야 헌신적인 봉사를 해오신 집행부 여러분들의 선구자적 봉사 정신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인사를 대신하는 바입니다.

2003년 6월

제19대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이사장 이준성